

'93년 정유업계 10대 뉴스

'93년이 저물어 간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밀어 닦친 변혁의 물결은 정치·경제·사회등 각 부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자유화·개방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정유산업도 도전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정유산업은 자유화·개방화의 흐름속에서 시장경쟁원리가 수용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동안 정유산업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중 10대 뉴스를 추려본다.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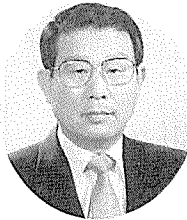
정유5사 자동차 연료 무연휘발유로 전량대체

정유5사는 1월 1일부터 발암성 유해물질과 매연등 공해물질 발생이 적고, 자동차엔진 수명도 길어지는 저공해 무연휘발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저공해 무연휘발유는 종전 유연휘발유에 비해 벤젠함량과 방향족화합물 함량이 일정량 이하로 규제되고 0.5% 이상의 산소가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등의 배출을 20%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8대 석유협회회장 具斗會 湖油시장 선임

석유협회는 2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에 具斗會 호남정유사장을 선임하고, 康星喆부회장을 연임시켰다.



상공자원부 출범 상공부·동력자원부 통합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된

상공자원부가 3월 8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동자부는 지난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에너지자원의 안정공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자 상공부에서 동력자원국, 전기국, 광무국이 분리돼 에너지·자원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78년 1월 1일에 정식 발족됐다.

**현대정유
심현영사장 새로 선임**

극동정유는 6월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沈鉉榮 현대 그룹 종합기획실장을 대표이사사장으로, 鄭夢憐 현대석유화학부사장을 대표이사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극동정유는 7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현대정유로 바꾸었다.

**정유5사
초저황연료유 공급**

정유5사는 7월 1일부터 황함량을 대폭 줄인 초저황 청정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초저황 B-C유는 황함량을 1.6%에서 1.0%로, 경유는 0.4%에서 0.2%로 각각 낮춘 것으로서 경유는 전국 일원에, 그리고 B-C유는 수도권 20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다.

**정유업계 · 정부
유가자유화조사단 유럽 파견**

정유업계와 상공자원부는 유가연동제 및 유가자유화 실시를 앞두고 유럽제국의 유가자유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8월 8일 7명으로 구성된 유가자유화조사단을 유럽에 파견했다.

이들은 8월 19일까지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태국 등을 방문, 유가자유화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과 방법 등을 조사했다.



**정유4사 정제시설
日産 45만8천배럴 증설허가**

상공자원부는 8월 28일 유공,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등 정유4사의 45만8천 b/d 증설 허가를 발표했다.

업체별 증설허가규모는 유공 20만 b/d, 경인에너지 5만 b/d, 쌍용정유 11만 8천 b/d, 현대정유 9만 b/d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증설공장이 가동되는 1997년에 가서는 국내정제능력이 현재의 1백67만5천 b/d에서 2백50만1천 b/d로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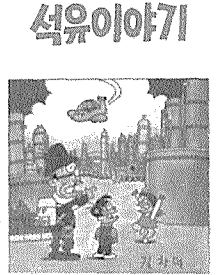
**제9회 한일석유정보포럼
일본 도쿄에서 열려**

석유협회의 일본석유연맹은 10월



**석유협회
홍보만화 <석유이야기> 5만부
추가제작**

석유협회는 9월 28일 상공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홍보만화 <석유이야기> 약 5



만부를 추가 제작, 대전엑스포장내 자원활용관에서 입장객들에게 배포했다. 석유협회는 지난해 12월 이 만화의 초판 5만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한바 있다.

**서울등 6대도시
주유소 거리제한**

서울등 6대 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이 11월부터 폐지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 주유소의 거리제한도 2년후인 1995년 11월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12, 13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제9회 한일석유정보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康星喆 석유협회부회장등 7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